

평일 PM 8:00 (월요일공휴일없음) | 토·일 PM 4:00, 7:00

2013년 10.10(목) ~ 10.20(일) 액티스소극장

주최 | 부두연극단 문의 | 051-611-6616 / 010-2584-0997

출연 | 안성혜 임선미 김미영 박선희 각색/재구성/연출 | 이성규 기획 | 박창화

무대감독 | 홍일웅 안무 | 김보영 음악 | 강원중 조명 | 최동일 무대미술 | 황지선, 김재한

· 도움주신분들 ·

장성규 이성섭
유율금 임미정

김문홍
서만재

송승이 김동규(극장공사) 강성우
강성래(아트플레이동호회)

부두연극단 30주년맞이 준비공연 NO.1 / 부산소극장연극페스티벌



참가작

Off Stage

여배우를 위한 연극...
오프-스테이지



극단 부두연극단



- 창단 30주년맞이 부두연극단 주요멤버 -

1기 (창단 - 부두소극장설립과 함께 부두극장 창단)
이성규, 허정숙, 권오진, 김하균, 김영구, 허대영, 조문선
김광보, 우창호, 박창화, 김정옥 등

2기 (가마골소극장 시절)
이성규, 허정숙, 박지일, 김주현, 김미경, 김채희, 김광보
김경수, 박창화, 조문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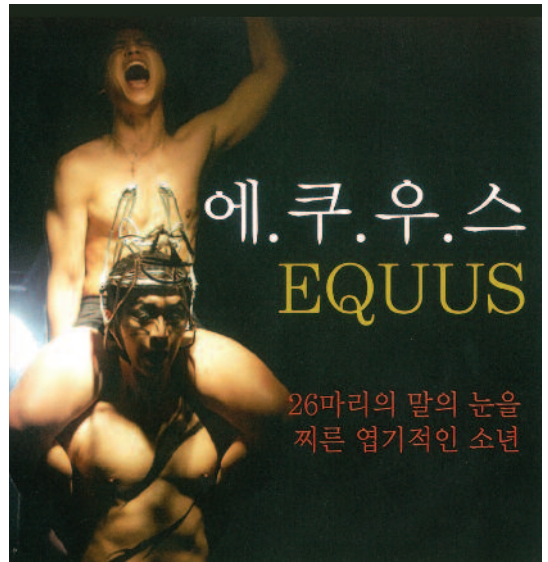
3기 (범일동 시절)
이성규, 박지일, 김하균, 허대영, 김홍근, 김미경 등

4기 (유랑 및 부산대 시절)
이성규, 김경수, 박지일, 변미선, 정순지, 김보영, 장하근
김태진, 우명희, 노영아, 김현경, 등

5기 (연당소극장 시절(부두연극단 개칭))
이성규, 김윤석, 김영웅, 오세원, 유영운, 변미선, 김보영

6기 (액터소극장 시절)
이성규, 우명희, 최성우, 김정순, 박미경, 김태훈, 최현경
류혜린, 백권집, 양은미, 김미경, 안성혜

7기 (현재)
이성규, 박창화, 김미경, 김미영, 김보영, 김명희, 홍일웅
어성립, 안성혜



- 2013년 30주년 준비프로그램 -

- 2013. 10. 7 오프-스테이지 시연회
- 2013. 10. 10 ~ 20 오프-스테이지 공연
- 2013. 11월말 창작극 워크샵
- 2013. 12월 홈 커밍데이

- 2014년 (30주년) -

- 부두연극단 30년 공연사 / 책발간
- 후원의 밤
- 기념공연 1, 2, 3





Off-Stage 오프-스테이지



Staff

각색 / 재구성 / 연출 | 이성규
 기획 | 박창화
 무대감독 | 홍일웅
 안무 | 김보영
 음악 | 강원중
 무대미술 | 황지선
 김재한
 조명 | 최동일
 총진행 | 김미경
 진행 | 어성립
 사진 | 박창화
 편집&디자인 | 디자인예감

Cast

여배우A | 안성혜
 여배우B | 임선미
 여배우C | 김미영
 여배우D | 박선희

2013년 10.10(목) ~ 10.20(일)

평일 8시 / 토·일 4시, 7시 (월요일 공연없음)

액터스 소극장 (남천역 1번출구, 하이마트 뒤)
문의전화 | 611-6616

예 매 처 | 부산은행 전지점, ticket365.co.kr(팝부산)

E-mail | godo1984@hanmail.net

http://cafe.daum.net/actorsplay

*본 공연은 2013년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의 일부지원으로 시행됩니다.

공연에 부처



대표_ 이 성 규

1984년 중앙동에 허름한 창고를 빌려 부두소극장을 개관하여 연극활동을 한 부두연극단이 내년이면 창단3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소위 “고래등같은 기와집” 태워 숯불장사 하는 것 같다는 돈 안되는 연극활동을 끈질기게 해온 셈이다. 그동안 부두소극장, 가마골소극장, 연당소극장을 거쳐 이곳 액터소극장에 둥지를 튼것도 8년이 다 되어간다. 에쿠우스, 고도를 기다리며, 19그리고80 등 관객이 많이드는 레퍼토리 공연을 남기기도 했으나 극단활동의 목표가 워낙 소극장연극운동 차원의 실험극 이다보니, 부산연극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늘 별종으로 취급받아오지 않았나싶다. 그동안 술한 인재를 길러낸 극단으로 정평이 나 있지만, 액터소극장에 온 후에는 동력이 많이 떨어진 듯 하다. 세태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활동해온 단원들이 서울로 진출하거나 생업으로 돌아선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에 극단을 연륜에 맞게, 그럴듯하게, 살려보자는 주위의 격려와 권유도 있고해서 30주년을 맞이하는 준비작업을 하나씩 진행중이다.

작품 OFF-STAGE는 준비작업으로하는 첫 작품이다. “오프-스테이지”는 원래 여배우 양성 프로그램(WORK-SHOP)으로 기획된 공연이며, 2006년, 2010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공연된다. “오프-스테이지”는 기성 여배우들에게는 연기술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꿈을꿔 왔으나 배우의 꿈을 접어야 했던 중년여성들과, 이제 막 꿈을 펼치는 신인여배우들에게는 연기술을 익히는데 적합한 작품이다. 오래, 자주 공연되면서 관객이 많이드는 레퍼토리 공연이 되었으면한다.

그동안 구민주, 우명희, 홍승이등 기성여배우는 물론 김나영, 김채희 같은 중년여성들, 박미경같은 신인여배우들이 출연해 왔다. 이번 무대는 그동안 꾸준히 활동해 왔으나 크게 부각되지 못했던 안성혜, 임선미와 함께 최근 본 극단에서 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년약사배우 김미영(에쿠우스, 19그리고80 출연) 그리고 새로운 신인여배우 박선희(동서대 연기과 졸업)가 함께 호흡을 맞추며 열심히 연습해 왔다. 오프-스테이지는 여배우의 정체성과 존재의미를 묻는 일종의 메타-드라마 형식으로서, 여배우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공연에 참여하는 여배우들에게 일종의 각성을 촉구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 여배우 워크-샵으로서는 참 좋은 작품이다.

“연극은 인생을 거울에 비춰보는 것이다.”라고 셰익스피어가 말했듯이 이 작품은 여배우들의 꿈과 상처, 그리고 환상을 분장실의 거울을 통해 보여주는 특이한 작품으로, 재미와 흥미 그리고 새로운 감각을 관객들에게 보여줄것이다. 특히 이작품은 무대바닥 공사등, 새롭게 단장된 무대에서 공연되어 그 의미가 깊다. 부두 연극단을 사랑하고 후원해온 모든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우리 단원들에게 큰 힘을 실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축하의 글



‘고도’를 기다리는 ‘고도’

작가_ 신 태 범

내년으로 창단 30주년을 맞이하는 부두연극단은 황무지 상태인 부산 연극 생태계에서 용케 생존을 이어온 장수 극단중 하나이다. 게다가 대표 이성규는 이른바 부조리극과 현대명작극에 정통한, 그러나 매우 저평가 받고 있는 우리 연극계의 희귀한 연출가이다. 그동안 그가 연출한 레퍼토리를 보면 거개가 부조리극이다. 그가 따로 애정을 보여 온 피터 셰퍼의 에쿠우스같은 작품도 부조리극과 전통극을 접목한 것으로 평가된다. 부조리극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서구 지식인들이 지적공황상태에서 접화시킨 연극적 쿠데타였다. 전통극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폭동을 일으키듯 펼쳤던 반연극이었다. 그것은 기존의 가치를 송두리째 전복하고 ‘의혹과 질문과 의심과 반문’만을 끝없이 던질 뿐이다.

이성규가 특히 부조리극에 집착하는 이유를 나는 잘 모른다. 물어본 적도 없다. 안경 너머로 찡그리듯 한 그 특유의 웃음으로 구렁이처럼 담을 넘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래 전 나는 그가 연출한 부조리극의 대표작 ‘고도를 기다리며’를 본 적이 있다. 나는 그때 그가 부조리극을 편애하는 까닭을 어렵듯하게나마 짐작할 듯했다. 바로 그 자신이 ‘고도’를 열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나는 혼자 웃고 말았었다. ‘고도’는 극중 두 남자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기다리고 있는 정체불명의 사람이다. 누구인지, 언제 올지, 실재하는 인물인지도 알쏭달쏭한 사람이다. ‘고도’는 해석하는 이에 따라 메시아, 죽음, 희망, 자유 등의 상징이라고 말한다. 어쨌거나 우리가 필연적으로 맞이해야 할 어떤 존재인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몇 년 전 이성규가 다시 만든 ‘고도’를 보면서 그때의 내 생각은 더욱 분명해졌다. 여전히 그는 ‘고도’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성규와 나와 의 교우도 극단 부두의 창단과 시점을 같이한다. 그는 내가 미래의 부산연극계를 이끌어 나가리라 크게 기대했던 두 사람의 연출가중 한 사람이었다. 이젠 그도 잘 안다. 내가 그를 만날 때마다 귀에 못을 박아준 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미 연극판을 떠나버리고 그만 남았다. 지금도 그를 만나기만 하면, 혼자 남았기에 나는 더욱 가혹한 말의 대못을 박는다. 이성규가 이번엔 무대 뒤의 담화를 들려주겠다. 통상 귓속말로 주고받는 일상의 잡담들이 오히려 가려진 현상의 실체를 더 적나라하게 까발린다. 시미즈 구니오의〈분장실〉을 재구성한〈Off Stage〉. 무대 밖을 통해 그가 보여줄 무대의 정체가 무엇일지 기대된다.

지금 부산의 연극판은 30년 전이나 거의 다름없다. 그간의 발전과 성장이 부산의 연극판만 비켜간 느낌이다. 국제연극제 부산연극제 등 시민세금을 먹는 전시나 과비용 대규모 행사 따위는 상당하게 늘었다. 볼륨만 키운 부산 극단들의 민얼굴과 속살을 들여다보면 거의 회복 불가능한 중환자처럼 보인다. 더 거칠게 표현하면, 안일과 정체와 폐쇄의 늪에 빠져 기껏해야 자화자찬의 독배에 취해 있는 낙오와 패잔의 모습이다. 부끄럽기 짝이 없다.

부두연극단은 이제 본격적인 활동기인 청년기로 접어들었고, 대표 이성규는 어언 노년을 바라보게 되었다. 연륜이나 경륜으로 미루어, 그는 오늘의 부산연극판에 제대로의 지향과 활로를 열어가야 할 책무가 지워져 있다. 그가 30년째 기다리는 ‘고도’를 포기하기를 나는 희망한다. 아니, 그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고대한 ‘고도’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래야 판이 바뀔 것이 아닌가. 깊은 수면에 취한 부산연극판에 충격과 혁신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그 선두에 부두극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Off Stage’ 공연으로 진심으로 축하한다.

축하의 글



한 우물

극작평론가_ 김 문 흥

요즘 들어 연극 연출가 이성규 선생을 만날 때면 가끔 이런 생각이든다. 이 사람, 연극 이외의 생활은 어떠할까? 이 남자, 연극을 하지 않을 때면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하기 짝이 없다. 줄담배를 피우며 배우들에게 연출 디렉션을 할 때만이, 음습한 소극장 지하에 앉아 대본을 분석하고 있을 때만이, 가장 그 담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 외골수의 장인정신이 있었기에 부두연극단을 30년 동안 이끌어 왔을 것이며, 그런 한 우물을 파는 내공이 있었기에 독창적인 연극적 아우라를 만들어 왔을 것이다. 그의 책꽂이에 꽂혀 있는 사뮈얼 베케트, 페르난도 아라발, 피터 셰퍼, 가오싱 쟈, 이오네스코, 에드워드 올비, 장 주네 등의 희곡집을 훑어보면, 지금까지 한결같이 부조리극을 위시하여 현대의 고전명작들이 그의 단골 레퍼토리였음을 금방 알아챌 수 있다.

요즘 젊은 연출가들은 작품 분석을 소홀히 하고 있는데 이성규는 특별히 이 과정을 아주 중시하고 있는 연출가이다. 작가와 작품에 관한 관련 논문과 평론을 찾아 역할 배우들에게 읽고, 대사의 행간에 숨어 있는 상징과 비유를 찾게 하려고 많은 얘기를 하는듯 즐겁게 괴롭히고 있다. 아마도 배우들에게는 그의 연출 방법이 고되고 괴로울 수도 있으나, 한 작품을 끝내고 나면 자신도 모르게 크게 성장했음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연극을 처음 시작하는 신인들에게 그의 밑에 들어가 혹독한 연극적 연금술을 배우고 익히기를 감히 권하고 싶다.

내년에 부두연극단이 창단한지 30년 되는 해이다. 그래서 연출가 이성규 선생은 올해부터 서서히 위밍업을 하고 있다. 이번엔 공연하는(Off Stage)도 그러한 위밍업의 한 프로젝트이다. 여배우 A, B는 배우의 화려한 꿈을 잊지 못해 죽어서까지 분장실을 배회하며 영원히 오지 않을 무대 등장을 기다리고, 여배우 D는 분장실을 찾아와 여배우 C에게 “니나”역을 돌려달라지만 거절당한다. 여배우는 D는 죽어서 다시 분장실을 찾는다. 여배우 C는 육체의 아름다움이 노쇠해 가는 서글픔을 어쩔 수가 없다. 세 배우는 체휼의(세 자매)를 준비한다. 이 작품은 여배우들을 위한 연극으로 부두연극단에서만 벌써 세 번째 공연이다. 이 작품은 연극을 통해서 연극을 이야기하고 있는 일종의 메타-드라마이다. 그러나 여배우 이야기에 한정되지 않고 여배우 네 사람을 통해 우리 자신의 자화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연출가 이성규 선생은 부산연극계에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이다. 그는 30년 동안 한 우물을 파오고 있으며, 또한 30년 동안 엇길로 새지 않고 오로지 일관된 작품 세계를 지켜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는 연출가의 개성을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지켜오고 있는 셈이다. 그가 10여 년 전에 부산국제연극제를 출범하게 한 산파역을 담당했고, 올해 부산국제연극제를 일선 연극현장으로 회수해 온 투쟁의 주역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는 영불보다는 젓밥에 관심 있는 작금의 연극적 시류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연극인이 작품 만드는일에 매진하지 않고 연극 외의 것 즉 돈과 권력등에 매달리는 풍토를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건전한 연극풍토를 만드는 데 앞장서자고 격려하고 있다. 부두연극단의 창단 30주년을 미리 축하한다. 그리고 이번 작품에 혼신의 힘을 다한 배우와 스태프들의 노고에 아낌 없는 박수를 보낸다. 연극 만세!

Off-Stage 오프-스테이지

이성규 | 각색·재구성·연출

부두연극단, 액터스소극장, 창작극연구회 대표
현. 한국연극협회 감사
봉생문화상, 부산예술상, 자랑스런 대한민국 연극인상
올해의 연극인상 수상
부산연극제 대상, 우수상, 연출상, 희곡상 수상

대표작 | 고도를 기다리며, 에쿠우스, 19그리고80
달라진 저승, 쥐사냥, 생사계, 로리타
잡귀잡신은 몰알로 등 다수



연출의 변

우리는 인생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산다. 아버지역할, 선생님역할, 연출가역할... 그런데 그 자신의 역할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키고자하는 일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 위치와 역할을 지키기 위한 인간의 욕망은 끈질기게 마련이다. 그러한 존재의 집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환상과 꿈으로 가득차있다. 이런 인식을 잘 드러낸 작가는 프랑스의 장-주네다. 장-주네의 “발코니”는 자신이 되고자하는 이미지의 삶을 살고자 죽음까지 불사하는 인간존재의 허망함을 극중극의 연극놀이로 절묘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연극 오프-스테이지는 소외되지않고 자신의 역을 실현하고자하는 여배우들의 꿈과 환상을 “거울놀이”를 통해 보여준다. 여배우의 삶은 꽃처럼 화려하지만, 세월과 함께 잊혀지고, 시들어 버리는 존재이다. 그만큼 짧은 시간속에서 시기와 경쟁, 압투를 견뎌내야 하는 그늘이 많은 존재이다. 어디 여배우들만 그럴까? 우리 인생 또한 그런 것이 아닐까? 화려함도 있지만 쇠락의 길이있다. 공연이 끝난 후 텅빈 객석에서 사라져버린 무대를 생각하며 얼마나 많은 연극의 죽음을 말보았던가? 그런 의미에서 셰익스피어의 명대사 “꺼져라, 꺼져라 잠시 동안의 촛불이여 인생은 걸어가는 그림자 제 시간이 되어 무대 위에서 활개치다 사라져버리는 가련한 배우, 백치들이 지껄이는 무의미한 광란의 얘기다.”는 절묘한 연극詩며, 인생詩다. 이 작품을 통해 여배우의 고달픈 삶 뿐만 아니라 “인생은 연극이며, 연극 또한 인생이다”. 란 것도 느껴주었으면 한다.

작품에 대하여

1. 인생이 연극인가?

배우는 자신이 맡은 역을 연기하기 위하여 등장인물의 내면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또한 등장인물을 연기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그 속에 투영하기도 한다. 때때로 배우는 종종 현실속에서 자신이 맡았던 등장인물의 습관과 태도가 배어나와 당황하기도 한다. 이처럼 인생과 연극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생이 연극인 것처럼 착각을 주기도 한다.

2. 리얼? 환상? 새로운 감각의 연극

이 연극은 여배우의 입장에서 보면 무척 리얼하다. 그러나 귀신이 나오고, 거울이 있고, 자의식적 독백이 섞여 있어, 무척 환상적이다. 슬픈여배우들의 마음의 무늬를 따라 가다보면 슬프고 웃기고 무섭고 이상아릇한 어떤 지점으로 다가서게 된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인생은 여배우의 관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지금 여기 이곳의 소외된 삶도 느끼게 되고 인생은 꿈이요, 한편의 드라마임도 인식하게 될 것이다.

3. “거울처럼” “꿈처럼”... 슬프지만 신비한 연극

이 연극은 ON STAGE(현실, 공연, 성공)의 이면에 있는 OFF-STAGE(환상, 무대뒷모습, 소외와 좌절)의 모습을 소재로 한다. 연극 속에서 연극을 다루는 메타-드라마 형식인 이 연극은 여배우의 자의식을(열등감과 꿈꾸는 자아가 수시로 교차하는)거울처럼, 꿈처럼 비춰 보인다. 이 연극은 마치 장주네 식의 거울의 연극 같다. 장주네는 인생을 거울 속에 비친 연극 같은 환상놀이로 보고 있으며, 세상을 상처받은 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극작가이다. 여배우는 무대에서기 위해 부단히 날개짓을 하는 나비처럼 자신을 담금질해야 하는데,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며 슬프다. 이 연극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여배우의 고뇌를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본다.



Synopsis

살아생전에 제대로 배우가 되지 못한 여배우 귀신들은 분장실을 떠나지 못하고 아직도 원혼이 되어 지금 공연을 준비중인 여배우들을 시샘한다. 지금 출연중인 여주인공에게 어린 소녀배우가 나타나 자기 역을 돌려 달라고 하자 그 주인공 여배우는 화가나 병으로 머리를 때리게 되고, 그 어린 소녀배우는 죽게된다. 이제 귀신 여배우는 3명이 된다. 그녀들은 이제 어쩔수 없이 자신들의 생전의 역을 실현하기 위해 체휼의 “세자매”를 연습하게 되는데...



안성혜 | 여배우A

1994년 제12회부산연극제 신인상수상“하늬”(광주댁)

대표작 | 완전한만남, 하늬(광주댁), 오피리어(광인),
해바라기, 길, 위트(비비안), 에쿠우스(도라),
이사가는날(유광미), 보이책(의사), 죽어피는꽃,
모함(최상궁) 외 다수

“ 저 소리를 들으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세월이 흐르면 우리도 영원히 이 세상에서 잊혀지겠지
그래, 우리 아직 끝나지 않았어!! ”

임선미 | 여배우B

대표작 | 우리마을, 달밤블루스, 너 붉은사랑,
시월연가, 전태일, 하동포구 아가씨,
고리, 굿모닝 대디, 보이지 않는 사람들, 짝퉁

“ 그래서 지금 난 니나야, 영원한...”



Cast

김미영 | 여배우C

대표작 | 연극학교 워크샵공연 '관객모독'
에쿠우스(도라)
19그리고80(체이슨부인)

2011년 창작극 연구회 희곡작품선정 '길목에서'

“그래 여러 가지로 희생했어. 하지만, 나 자신을 납득시키면서
지금까지 해왔어... 앞으로도 난 그럴거야..
자존심이 여배우에게는 존재이유나 다름 없으니까.
하루에도 열두 번 거울 앞에서 다짐을 했지. 강해져야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싸움은 끝없이, 거울속에 나의 투사.... ”



박선희 | 여배우D

대표작 | MondayPMS(여소장), 청춘정담(박지희),
부족한그대로동지(이선희), 'Themonster'(현진),
ILE DE ILL(마리), '팽하고 해뜰 날'(상담원)

“ 여배우는 보상없는 직업이에요 ”



· 단 원 모 집 ·

창단 30주년을 함께할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 ❖ 모집분야 : 연기, 연출, 극작, 무대미술, 의상, 조명, 음악 등
- ❖ 모집인원 : 00명
- ❖ 모집기한 : 년중 상시
- ❖ 모집요강 : 선착순 신청자 10명이 되면 한기수가 되어 소정의 교육과 훈련을 함(15일정도 소요)
이후 극단에서 준비한 워크샵공연에 참여함(연습 2달, 공연 10일)
- ❖ 우 대 : 문학, 미술, 음악 등에 조예가 있는 특기자우대
그무엇보다도 젊음의 열정과 순수가 있는 자특우대
- ❖ 연 락 처 : 051) 611-6616 (액터스소극장) 남천지하철역 1번출구 하이마트뒤